

新小説第一卷  
신소설 첫 권

# 鬼의聲

귀의성

(上篇)

(상편)

登錄番	號	3202
分類番	號	
圖書番	號	



37

1912

Inches  
Centimetr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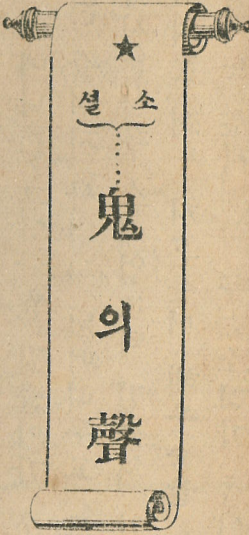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第一章



菊

初

김포밤 지는들이 (春川三鶴山) 춘천삼학산 그림자를 새려다가 (南內面松峴) 남  
 면 솔기동늑 (姜同知) 강동지집 건년방 서창에 드렸더라  
 창호지 혼검문 가린 호창밧해서 긴버키 혼머리 비고 널흔노 한편에 혼자누어  
 잇는 부인은 나히 이십이 되락물락하고 일골은 도다오는 본들갓치 탐스럽더라  
 그부인이 버키혼머리가 비여서적적혼 마음이 잇는중에 비속에서 팔씩팔씩 노  
 는거슨 뇌월만되면 아들이는 딸이느 나흘터이라고 혼즈마음에 위로가된다 노  
 셔창에 빗추는달빛으로 벅을삼고 비속에서 썸지락거리고 노는아히로 나을삼아  
 누엇스느 이걸싱각 저런싱각 잠못들어 이를쓰다가 삼학산그림자가 창을점점이  
 리면서 방안이 우중중 하여지는데 부인도 싱각을 이즈며 잠이 드렸더라  
 잠든동안이 깨르놓은 눈도몇번 못꿈져거릴터이느 부인의 꿈은뻘리줄갓치 길게  
 쉬엇더라

登錄番	3202
分類番	
圖書番	

꿈을 꾸다가 가위를 들었더니 소리를 버럭 질녀서 그 집안방에서 잠자던 동지의 녀  
의가 잠짜늘나 깨었는데 강동지의 마누라가 웃동벗고 너르속것 바람으로 흔거  
름에 띄여왔다

이이 길순아 문여러라 문여러라 이이 길순아 길순아

길순이를 두세번 부르다가 길순이가 티답이업스니 다시안방으로 향하고 강동  
지를 부르다

여보 령감이 리좀 건너 오시요 길순의방에서 무슨 이상흔쇼리가 들었는데 아  
무리 불너도 티답이업스니 원일이오

(동지)이이 길순아 길순아 길순아

길순이를 부르느라고 원집안이 범석을 향는데 그방속에있는 길순이가 잠이깨엿  
스나 숨소리도업시 누었다가 마지못하야 티답하는 모양이라

아버지 어머니는 그티답흔 길순이가 무슨 녀녀가되야 저러케 애를 쓰시오  
길순이는 죽던지 사던지 너버려두고 드러가서 쥬무시오

항더니 다시는 아무 소리업는데 길순의 가슴은 녹는듯하야 버기에 드러누엇고  
강동지 녀외는 죄는 지흔듯이 헛우숨을 우수면서

오나 잠이느 잘자거라 무슨 소리가 들이기로 녀녀가 되야서 그리향앗다

항면서 안방으로 건너가더니 강동지마누라는 우동버스쳐로 방한가운데 안졌  
는데 무슨싱각을 향는지 열

짜진 사름갓치 우뚝허니 안졌더라

그씩는 달그림자가 지구를 안고김피드러온후이라 강동지 집안방이 굴속갓치  
어두었는데 강동지는 그것케 어둔방에서 담베스티를 차지려고 방안을 더듬더  
듬더듬다가 담베스티는 안이집히고 마누라의몸등이에 손이닷더라

관슈가 계집을문지드시 마누라의 머리에서부터 더듬어 너려오더니 중흔이도  
절문 마암이나던지 담비씩는 안이창고 마누라를 드러누흐려하니 마누라가 팔  
을 썩리치며 항는말이

여보 좀 가마니잇쇼 남은경황이 업는데 우의 이리향오

(동지)우의 무슨걱정잇나

(마누라)여보 자식의게 저몹슬노릇을향고 걱정이 안이된달말이오  
나는 우리길순의 싱각을향면 썩가 녹는듯향오

자식이라고는 그것한아썩인티 금옥갓치 길넛다가 지금와서 저러흔신제가  
되니 그거시 누 낫이오

초록은 제빛치쫓타고 사위를 보거든 갓흔상사름씨리 흔인향는거시쫓치  
냥반사위 쫓타고 흘비러먹을년이잇나

니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잔느 혼집 지차 자식이든지 그러치 안이 하면 부모도 업고 사름만 착실하 아히를 골느서 다릴사위를 삼아서 평성을 다리고 잇스려 하얏더니 그 쇼원이 쓸디 업고 스위업는 썰한 아문 다리고 잇게 되얏쇼  
 여보령감 낭본스위를 보려고 남을 입도 못 버리게 하고 풍을 칠씨에는 그 혼인만 하면 항늘에서 은이나 금이 는 쏘다 지는 것 같고 길순이 는 신선이 나 되는 듯 하더니 사위덕을 얼마 는 보앗쇼

(동지) 말 좀 느적느적하게

길순이 드르리

덕은 작게 본 줄 노아나

김승지령감이 춘천군수로 잇슬 때에 최달평의게 빗바든 거슨 성역지의 돈을 바닷지 어디 그리 할 거사 당연이 바들 것 인가 그나 그 썸인가 청질은 죽게 하야 먹었나 (마누라) 에그 썸씩 하야라 큰 수 낫썸 그러나 그 수느서 성긴 돈은 다 어디 두었소 (동지) 압다 이런 답답한 말도 잇는 빗금흔것은 무엇이며 그동안 먹고 쓴것은 무엇이 가

우리가 빅척군두에 썸 죽을 지경에 김승지령감이 춘천군수로 내려와서 우리 길순이를 첩으로 들나하니 참롱쌈썸엇지

니가 전에는 풍인한 아만 보아도 설설 괴였다니 춘천군수 사위 본후에는 니가 올

니를 드러가면 동지님 동지님 하고 어디를 가던지 녹회 접시 술잔이 썸날씨가 업섯네

그령감이 비쳐승으로 갈녀 드러가 지물고 춘천군수로 멧히만 더 잇섯더면 우리가 수놓본 하얏네

예편네 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안에서 방정을 썰고 잇스니 될 것도 아니되야 잠자코 가마니 만 잇게 그냥 반덕에 우리가 또 수놓때 잇느니

항느소리에 마누라가 골이 잔썸 낫더라

무식한 상사름은 니외 다름이 는면 밍서 지거리 욱지거리 가아니면 말을 못 한다

(마누라) 그 비러먹을 소리 좀 마오 집안이 잘 될 거슬 예편네가 방정을 썸려서 아니 되얏쇼 구려 너 일부터

니가 병어리 되면 항늘에서 명석 갖 혼복이 느려와서 강동지의 머리에 서부터 너려 덩허 씨 흘러 이지

어디 좀 두고 보아야

냥반사위 보고 그 덕에 청냏이는 항여 먹고 읍니 가면 녹회 접시 술잔이 더 먹었다 고 그 썸지 거슬 덕 본 줄 알 고 길순의게는 저러 혼적 약 흘 줄은 모르니 참 답답한 일이 오

길순이 는 정절 부인이 되려느 웨 다른 디로 시집을 아나 가 고 김춘천인지 김승

지인지 그망흔놈은 바라고잇서  
 김승지김승지 김승지가 다 무어시오 그런김승갓흔놈이 어디잇단말이오  
 저의 마누라가 무셔워셔 첩을다려가지못하고 저렷케 둔단말이오  
 안히가 그렷케 겁이날것 갓흔면 당초에 첩을엇지말일이저 엇어는뜻코 남의  
 게 저런못홀노릇을놓여

그망흔놈 편지는말면 조흐련만 편지는 우익흔는지

니일은 길순이더러 다르방을 어드라고 일너셔 만일아니듯거든 처죽여야  
 호강하려고 남의첩되앗다가 엇더흔 비러먹을년이 고싱하고 근심하려고 잇서  
 호는소리에 강동지는 골이나셔 제게잡을 박살이라 도하고심흐나 살씩살씩 참고  
 잠조코잇는거슨 계집을익겨셔 참는거시아니오 돈을익겨셔참는거시라

돈은무슨돈인가 강동지의 마암에는 길순이를 돈덩어리로보고 잇는터이라  
 그돈덩어리를 덧넛다가 중병이느면 탈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름에 담베스디를차져셔 담베를부쳤던지 방바닥에서 담베불만 반짝々々흔  
 다 단풍머리 찬바람에 이슬이어려서리되는 식벽괴운이라 열이잔득났던 마누  
 라가 몸이쓰느릿케 식엇는디 옷을차져 입느라고 부스럭 부스럭하더니 운목에  
 가서 혼자옹고리고 등걸잠을잔다

(동지)여보게 마누라 마누라 감과 들여고 운목에서 등걸잠을자나

마누라노 숨쇼리도업시 쥐죽은드시 누엇는디 강동지는 그마누라의 잠아니든줄  
 을알면서 모르는체하고 혼자말로

계집이란거슨 홀일업는거시야 고련방정이잇나

김승지령감이 늘더러 길순이다리고 서울로올너오라고 괴별싸지하얏는디 집  
 안에서 그런말을하면 그늘그시로 아니떠는다고 방정들을 썰듯하야셔 니가잠  
 조코잇섯지

니가영웅이지 조방정에 그쇼리를듯고 혼시를참아

운목에서 등걸잠을 조드가 감과나 드러서 뒤여젓스면

하더니 담베스디를 락락떨고 이불속으로 쑥 드러가니 마누라는점점 치운싱각이  
 나서 이불속에로 드러가고심흐나 강동지가 부를때에 드러가지 아니하고 지금  
 제풀에드러가기도 열적은일이라 다시부르기를 기다려도 부르지는아니하고 제  
 풀에풀이나셔 식로히 이러는더니 혼자말로

이웬수갓한밤은 웨밤지아니하누

니가감과나 드러서 겨구러지기만 기다리는 그싸지령감을바라고 살 비러먹을  
 년이잇나 놀이느발거든 니속으로나혼길순이싸지 쳐죽여버리고 니가령감압해  
 서근슈나 마시고 눈살을뒤어쓰고 죽는거슬 뵈힐터이야

(동지)죽거나말거나 누가죽으릿나

공연이 제풀에 방정을떠려  
 죽거든 혼조는 죽지 잊구진 길순이는 왜 처죽인 다하느니 김승지가 놀마다기  
 터리고 잇는길순이를.....  
 그렇게 승거운 싸음하는 소리가 단잔마루것년방에 혼자누흔길순의귀에는 낫낫  
 처 유심이들인다 강동지의 영터리도 업는거진물에 길순이귀에는 낫낫치 참물  
 로드러터라

第一章

길순이는 강동지의쌀이라 그애비의게 속기도 만히속앗는터 문일남의게 그렇게  
 속앗스면 드시는참물을드러도 거진물로 드를터이나 자식이부모를 밋는마음에  
 의심도업시 또 속는다  
 그안방에서는 강동지의 숨씨잇는거진물한드리에 마누라의포달은 제풀에주러져  
 서 크던목소리 적어지고 저던목소리 업서지더니 그루잠이드러던지 아모소리도  
 아니들이더라  
 길순의 버키가다시 종종흥여젓더라  
 창밖게 오동나무가지에서 식벽싸치가 두세마디젓는터 그싸치의소리가 길순의  
 버키우에 똑똑떨러진다  
 길순이가 잠못는 눈을감고 누엇다가 눈을번쩍써서보니 창밖게는 다밝은날이라

싸치야 싸치야 반기여라 김승지뒤에서 날다리러 교군오는 소식을 전하느나  
 에그 그집 인품은엇더하고 어서좀가서 보앗스면  
 하더니 한번뒤쳐 누흐면서 발로이불을 툭 차서 이불이 허리아리만 길척터라  
 일평상에 서울을 못가보고 죽으려니 생각하고 잇슬씩는 그근심뿐이려니 서울  
 로올너가려니 생각하고 잇스니 남모르는 걱정이무수히 생기더라  
 괴품쫓코 부지런흔 강동지는말서이려나서 압뒤로 도라단기면서 잔소리를 하더  
 니 동니막설이집으로 나가더라  
 강동지의 마누라가 무슨경스나 난드시 길순의방에로 건너오더니 입이헤버려져  
 서 길순이를부른다

이애길순아 네가저렷케 탐스럽게 잘싱긴얼골을가지고 팔자가 사나올리가 있  
 나냐

(길순)무슨팔자 조흔일이싱겠소

(모친)오냐 걱정마라 우리가그동안에 헛근심을 그것케하고 잇섯다  
 네가오늘이야 처음으로 너의아버지의게 자세한말을드려다

김승지가 너의아버지더러 너를다리고 서울로오라고 노자까지 보닛다느니 너  
 의아버지가 돈을썼는지 우리더러 그말을아나하고 잇섯다가 오날식벽에 처음  
 으로 그말을하시더라 엇더케 흥던지 네일은너를다리고 서울로잔다하니 오늘

부러라도 횡등을 차려라  
 네가 올라 잔뒤에는 우리가 초초 네게로 올라가 있다  
 우리네외가 늑개와셔 너땀개 의지할티 있나냐  
 향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 길순이가 마쭈보며 눈물을 흘이는데 그늘그시도  
 모녀상별하는것 갓흔지라  
 그썩 강동지가 식전술을 얼근호도룩먹고 제집에로 드러오는데 식벽녀에 거진  
 말하던일은 언제무어시라 호얏던지 생각도안이나는데 그마누라가 모녀마쭈보  
 며 우는거슬보더니 서슬있게 소리를질으더라

요방청마진것들 계집년들이 식전참에올기는 우의우느냐

길순의모녀가 평상에 그런일을 처음으로 당하는것갓향면 녀편네마음에 경풍을  
 호엿슬터이나 강동지의 그짜위소리는 그집안에서 여스로듯는터이라 강동지가  
 빗만졸여도 화푸리는 집안에드러와셔 만만흔계집 즈식에게호고 술만취하여도  
 쥬정은 계집즈식에게호고 무슨경영하던일이 안이되야도 씩증은집안에 드러와  
 셔 부리는고로 그마누라는 강동지의쭈목이나 무셔위할샤 여잔잔소리는 의례히  
 드을것으로알고있다

(마누라) 압다답답호 소리도 호시구려 길순이가 너일떠나면 언제다시 볼년지  
 우리가 추후로 올라잔다호기로 말이그러호지 쉬운일이오

여보오날하로만 걱정을 좀 마르시고 잠잠코게시구려  
 길순이를 집에두고보면 몇철이나 볼라구 그리호시오  
 향면서 눈물이 쏘다지니

(길순) 어머니우지마르시오 니가 아버지 걱정을 드르면 몇철이나듯깃소

서울로올나가면 아버지 걱정을듯고 심호기로 어더드를 수가인깃소

걱정을 호시던지 귀애호시던지 미들곳은 부모땀개또잇쇼 니가서울로 가기는

가나 왜일인지 마음이고약호오

어제밤에 꿈자리가 호도스나우니 꿈땀이나 아나홀년지

향면서 꿈생각이나더니 소름이죽죽기치고 눈물이 뚝긱쳤다

(모친) 글썩 그이야이 좀호여라 어제밤에 네가자다가 무슨소리를 그러케질넛

넛지 좀무려보려하다가 쌀말호노라고 못무려보앗다 꿈을싸고가위를놀였더냐

길순이는 디답업서 가마나안젓고 강동지는 마누라와 길순의얼골만 흘금흘금보

며 담베를 부스럭부스럭답는다

길순이는 꿈생각만 호고잇고

강동지는 거진말할경륜을 호고잇다

길순의 꿈생각은 이져서 생각는거시 아니라 무섭고꿈씩호야 압닐조심되는 그  
 생각을호고잇고 강동지의거진말할생각은 차일피일호고 쌀을아니다리고 가즈는

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귀정이 날일을 생각하나  
못된 의사라도 의사는 방흥이 갖흔 스름이라 아모쇼리도업서 고기를뚫뚫뚫  
며 빙긱빙긱웃는다

무슨경륜을 흥야는지

의비의얼골에는 깃분빛이오

어미의눈에는 눈물방울이오 쌀의가슴에는 근심덩어리라

세식구가 서로보며 한참동안을 아무쇼리가업더니

말은깃분마암잇는 사람이 먼저넘는다

(동지)오냐 두말마라 술기동내서 서울이일빅구심리다 내일씩씩씩나면 아무  
리 단패교군이라도 모레저녁때는 일죽드러간다

마누라 아침밥좀 일죽이 흥여쥬게 어더가서 교군잘하는놈 들만어더야 흥기  
네

아니 그럴것도업네 나는아즉 밥싱각도업스니 지금으로 어더가서 교군먼저어  
더뚫코

흥면서 뒤도아니도라보고 문밖게로나가니 길순의모녀는 눈압헤리별을 두고아  
침밥지어먹기도 이젓던지 돌이마쥬보고만 안젓더라

(길순)어머니 님이약이좀 드러보시오

꿈에는 님가아들을나서 두살이되얏는디 흥박뚫갓치 탐스럼게 생각것이 나를  
보고 엄마엄마흥면서 님압헤서 허덕허덕노는디 우리큰누라라 흥는사람이  
상긱상긱우스며 어린아희를보고 두손바닥을뚫뚫치면서 이리오너라 이리오너  
라하니 천진의어린아희가 빙긱빙긱우스며 고사리갓흔 자근손을 님미니 큰마  
누라가 외락달려드러서 어린아희의두어귀를 담삭옹겨쥐고 빈씩들더니 어린  
아희 더강이서부러 몬창몬창매미러먹으니 님가놀남고 앓씩흥야 어린아희를  
섹스려흥야더니 큰마누라가 빈도막짐 남은아희를 집어던지고 피가말갓케 무  
든조동이를 썩버리고 앙상흥입새리를 흥들며 왈각달려드는데슬에 절기를흥  
야 소리를지르며 잠이깨엿스니 무슨꿈이 그러케도 교약흥오

(모친)이이 그꿈이약이를 드러니 소름이끼치는코나

그러면 서울로가지말고 집에잇거라

네가 저금열아흥살에 전정만리 갓흔사람이 김승지가 아니면 서방이업겟는  
나 우리갓흔 상사름이 슈절이니 괴절이니 그싸위소리는 흥여무엇흥는나어  
더던지 고성이는 아니흥곳으로 보니쥬마 나는사위덕도 바라지아니흥다 사람  
만착실흥면 돈푼업는(乞人)겉인이라도 겨관업다

(길순)어머니그말마오 조흔일도팔자에타고나고 흥흥일도 팔자에타고나는거  
시니 님팔자가조흥갓흥면 김승지집에가셔도 조흥거시오 흥흥갓흥면어더



를 가기로 그팔자 면흫슈잇소  
 또사람의형실은 본상으로의논 할거시아니오 사족의부녀라도 제삼암부정혼사  
 롬도 잇슬것이오 불상년이라도 제삼암정렬혼 사름도 만홀터이니 나논아무리  
 시골구석에사는 상년이라도 두번제번 시집가기는실쇼  
 시집에가서 조흔일이잇던지 흉한일이 잇던지 같길은호로받비 가고실쇼  
 허가나이가 되도록 모녀의공논은 뜻치지 아니호였는디 강동지는말서 제짐으로도  
 라왔더라 조고마흔 일을보아도 불멘소리를호던 강동지가 그늘은별다른 놀인지  
 낮이되도록 아침밥을 아즉아니 호였단말을 드러도야단을 아니치고 길순이가  
 비코푸깃다 어셔밥 지어먹여라 호는말썰인디 너일시벽에 길씨늘준비를 다호고  
 드러온 모양이라  
 길순이는 형장을 처린다 처린다 호면서 경당의먼지한아 려지못호고 그날허가  
 졌더라

강동지의마누라는 허동거리느라고 길순의형장처리는것도 거드러주지못호고 잇  
 다가 길씨느날 식벽이된후에 문밖에서말원앙소리느는거슬듯고 한편으로밥짓  
 고 한편으로말죽씩고 한편으로형장을처리는디 엇지그리급호던지 된장을거르다  
 가 말죽숯해도 드러붓고 형장을차리다가 옷틈에걸네짜지 집어넋더라 그러케서  
 벽부터 법석을호나 필경씨날씨는 허가나이는된지라 강동지의수선에길순이는밤

먹을동안도업시 교군을타는디 모녀가 다시맛나보리 못보리호면서 울며블며리  
 별이라 술기동되는너편네천지런지 혀는너편네 절문여편네가 안마당 밧젓마당  
 에 굽듯모혀서 언제길순이와 정이그렇게 드러던지 길순의모녀우는디로 명다라  
 서 눈물을흘닌다 이눈에도눈물  
 셔눈에도 눈물

약흔마음 여린눈에 남우는것보고 감동되야 눈물느기도 여사라호련마는 후々  
 기며 우는거슨 이상한일이라 이웃집로과는 길순이를 길러내서 정이그렇게드  
 렷다호더리도 고지드름몬호거니와 아리마을 박첨지의며나리는 길순이와 초면  
 인대 그시어머니싸라서 길순이 씨느는것 보러온사름이라 처음에는 비죽비죽  
 울가를 시작호더니 나중에는 남붓그러운줄도 모르고 목을노으셔 엉々우니 그  
 거슨 우름판에와서 제천정싱각호고 우는스름이라

(동지)어이 이리호다가 오날길뭇씨느것구나

이이 길순아 어셔교군타거라 여보게 교군군 어셔 교군치머히고 이러나게  
 자! 동년아지만네 여러분이 평안이게시오

서울당겨와셔 또죄웁깃습니다

이이 겁동아 말 이리씨러오너라

호더니 부담말게 처켜타니 교군호치 말호필은 신연강(新延江)으로향호여 가고

솔기동네 녀편네들은 한아식 들식제집에 도라가고 강동지 마누라는 혼저넌집에 드러와서 목을뚫코운다

第二三章

본리김승지가 서울로올나갈씨에 강동지더러 호는말이 춘천집을 다리고가지 못 할사리가잇스니 아즉자네집에두고 기다리다가 언제던지 내가치형할 돈을보며 서울로오라 호기전에는 부디오지말나는 당부가잇는지라  
그러한사정이 잇는디길순이가 잠썬디호던날 식벽에 강동지의 마누라가 포달부 리는서울에 강동지가 거진말로 서울김승지집에서 길순이를 오라호앗다호고 또 호는말이 너일은길순이를다리고 서울로올너가갓다 호앗는디 밝은후에 이러나 서 술집에가서 식전술을얼근호개먹고 집에드러와본즉 길순의모녀가 당장리별 호는사를갓치 다시만호보는니 못보는니호며 우는거슬보고 강동지가기가막혔 다라 강동지가 성품은강호고 힘은장스이라 하늘에서 썰러지는 벼락도무섭지안 이호고 삼학산에서 내려오는 범도무섭지안이호나 겁나는것은 양반과 돈이라 양반과 돈을무셔워호면 피호야다라나는거사안이이라 어련아히 젓씩지싸르듯싸른 다  
싸르논 모양은한가지나  
싸르논 마음은 두가지라

양반을보면 디포로노아서 못질너죽여 씨를업히고 시픈마음이 잇스면서 거죽으 로싸르고

돈을보면 어미의비 보다반갑고 제집자식보다 귀이호는마음이 잇서서 속으로싸 르다 그러케싸르논돈을 이전시절에 남부럽지 아니호게 가졌더니 춘천부사인 지 군슈인지 쉽게말호려면 인피벳기는 불안당들이 번가라노려오는디 이놈이가 면살갓다시푸나 오노놈마다 그놈이그놈이라 강동지의돈은 양반의 창자속으로 다 드러가고 강동지는 피천디핀업시 외자술이노먹고 집에드러와서 화푸리로세 월을보너더니 서울양반 김승지가 춘천군슈로 내려와서 지방정처에는 눈이커금겸 하나 어여썬계집잇다는 소문에는 귀가썩밝은사름이라 술기동네 강동지의 딸이 어여썬단 말을듯고 강동지를불너서 고소디갓치 처겨세우더니 알씩징이가 다된 칩방을 시켜서 강동지를 엿더케살맛던지 김승지가죽이라호면 죽고시풀만 호게 된터에 김승지가길순이를 첩으로달노호니 강동지의마음에는 이제큰수났다호고 그쌀을 밧쳤는디 일년이못되야 군슈가갈닌지라 세력이업서서 갈닌것도아니오 시려셔너노흔것도 아니라  
김승지의살너는 서울잇다가 그남편이춘천가서 첩을두엇다는 쇼문을듯고 열길 스무길을씩며 당장에교군을 차려서 춘천으로너려가려호는디 원집안이 난리를 당호는갓치 창황호중예 김승지의아우가 급히동신궁에가서 춘천으로 전보호더

니 춘천군수가 관찰부 슈유도 못엇고 서울로 올라가서 비서승으로 올문터이라  
 길순이 모녀는 그러케 자제훈사정은 다 모르나 강동지는 조제히 아는지라  
 그런피상야 뜻은 사귀가 잇는디  
 만일 너 일찌는 다 하고 또 찌는 지 아니하고 잇다가 그마누라가 그사귀를 알고 길순  
 이를 충동하야 마음이나 변하게 할가 의심하야 서의스가는셔 불고전후하고 길  
 순이를 다리고 가서 김승지의게 밋기면 무슨도리가 잇스리라 하는 경영이러라

第四章

시작이반이라 찌는지사출만에 서울로 드러갔는디 아무동기도 업서 김승지집에로  
 드러가더라 김승지가 그리서슬잇는 세도지상은 아니나 일년에 천석츄슈를하느  
 니 이천석츄슈를하느니 그러할부자 득명하는터이라  
 쇼슬디문 줄행냥이 강동지눈에씩들며 그지물이반은 제거시되는듯하야 입이씩  
 버러지며 흥이났더라 하마셔압해서 말세너리면서 하게하던교군군더러 서슴지  
 아니하고 히라를하나

(동지)이이 교군군아 어셔안중문으로 교군되셔라  
 향면서 강동지는 큰사랑으로 드러가더라

하인청에서 색두가 제뻬식이나 되는하인들이 나서면서  
 여보 어디헝차오

(교군)네 춘천솔리동너 헝차되시고와쇼  
 (하인)어디와그리흠부루 드러가오 그중문안에 되셔놋코 기다리오 너 드러가  
 서 하님부르리다

하더니 하인은 안으로 드러가고

교군은 중문안에 너려노와더라 길순이는 교군속에안져셔 별칭각이 다는다  
 너가 왔단말을드르면 령감이 오작분가와하랴

춘천군슈로 잇슬씨에 호로흔서만 나를못보면 실성흔사람갓더니 그동안에 날  
 보고심히 엇지살앗누

령감은 날더러올너오라고 로자보닌지가 오리쓸터이지마는 필경우리아바지가  
 돈을다 쓰시고 나를쇠긴것이야

령감이 글도잘하단데 우익언문은 그러케 셋투르던지  
 편지를하면 아바지게만하고 너게는아니하니 너가우리아바지게 속은것이야

엇지되얏든지 이제는서울로 올너와스니 아모거정업지  
 집도 크고조와라

나잇슬방은 어딘구

그렇게싱각하며 교군속에 안젓는디 안디청에서 윈너편네목소리가 나기시작하  
 더니 아히종 어르종 헝냥것들이 안마당으로 모혀드는데 춘천읍너 장스군모혀드

듯한다

너편에 목리지 마는 무당년의 소리 갖치 썩썩하고 시원하니 폭포수 쏘다듯듯 것침  
시업시 나오노는 말이야

마루청이 쪼기지도록 발을 구르더니 명창광디가 화룡도 상성지르드시

금단아 스랑에 가서 령감엿주어라

령감이 밤낮으로 기다리시든 춘천집이 왓심이라고 엿주어라

요 박살을 흥여 노흘년 우익 나가자아니하고 알진알진 흥느냐

요년아리오너라

너가 조년부터 쳐죽여야 속이 시원하깃다

우레야

점순아

항며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집이 큰집이라 안디청에서 목청쫓케 지르는 소리라  
도 사랑에는 잘 들이지아니 흥느니라 강동지는 영문도 모르고 김승지압해 와서  
길순이를 다리고 온 공차사만한다

김승지는 안진기보다 긴담베스디를 물고 거드름이 뚝뚝뚝이 안제던스람이 삐딱  
놀나노모양으로 무렷던담베스디를 썩썩하고 강동지압호로 고기를 썩두르면서  
응 춘천집이 올너와서

그리 어디 있나

(강동지).....

(김승지) 아 교군이 이 밤에 왔나

미리 흥기노 있고 드러왔더면 조았슬 거슬.....

그것 참아니 되었네

괴왕그렇게 되었스니 자네가 이길로 그 교군을 다리고 계동박참봉집을 차져가

서 너말로 춘천집을 좀 맛타 두라 하게

(강동지).....

(김승지) 압다 아무 녀며 말고 가서 너 말디로 하게

나도 못 그리로 갈터이니 어서 가게 박참봉의게 부탁하야 오날로 곳 집주름불  
너서 조고마흔집이나 사게 하고 세근히 처흥여 줄터이니 어서 그리로 다리고가  
게어 이사람 지체 말고 어서가게 그러나 먼길에 쎄쳐와서 곧하깃네 시골서

그 동안에 굶지나 아니 흥였나

응 거정말게 자네니외 두식구 썩이야 엇디케 못살깃나

그 쇼리흔마디에 강동지가 일변 디 답을 흥며 밧그로 나가더라

김승지가 춘천집이 왔다 흥는 말을 드를썩에 겁에 썩흔마음에 제 말만 흥느라고 강  
동지의게 지세흔말은 못지도 아니 흥였는데 춘천집의 교군은 디 문밧게 잇는 줄만 아

랏던지 강동지를 보던면서 그눈치를 그부인의게 보히지아니할 작정으로 시침  
이를 썩썩이 고 안으로 드러가다가 사랑중문밖에 강동지가 선거슬보고  
(김승지) 왜 아니가고 거기셨나

그러흐 정신업는 소리하는중에 안중문밖으로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수군수군하  
는거슬보고 강동지의게 눈짓을 썩썩이 안중문으로 드러가다가 보니 교군은안  
중문밖에 노혔는디 안덕청에서는 그부인이 너두리하는 소리가 들이고 교군속에  
서는 춘천집이 모괴소리가갓치 우는소리가 들이는데 김승지의 두루막이자락이  
우름소리나는 교군을시치고 지나간다

가만이나 지나갓스면 조호련만 그못싱긴 김승지가 춘천집 교군업호로 지나면서  
원헛기침은 그리하던지 너가여기 지나잔다하는 흉괴하는 헛기침두세번을하고  
지나가니 춘천집은 과가막혀서 소리를싱키고 울다가 김승지의 기침소리를듯  
더니 반갑고도 미운마음이 별안간에 생기면서 우름소리가 커지더라

춘천집이만일 산전수전 다 겪고것침석업는 게집 망논이 갓흐면 김승지가 그당  
장에 두군디 정장을맞나고 디번에 세상 물정을아랏슬터이나 춘천술기구석에서  
량반무셔운줄만 아든빅성의쌀이라 또춘천집은 비록상사름이나 사족부녀가싸  
르지못할행실이 있던계집이라 춘천집이 과가막혀서 우는목소리가 점점커지다  
가 무슨조심이나던지 우름소리가 다시 가느러진다

김승지가 중문밖우름소리드르썩는 아처러운마음에 싸가늑는듯하더니 안마당이  
굿득차도록 드러선사름을보니 슈치흐마음에 얼골에모닥불을 담아부흔듯하더라

(김승지) 이것들 무슨구경났나나

원계집년들이 이럿케 드러왔나나

자근돌아네 | 이년들닐름 다 닐썩차라

저 조무리기싸지 다닐썩차라

하면서 안마루삿 섬돌에 옷뚝을나셔니

그부인이 김승지가마당에 드러오는거슬보고 무슨마음인지 아무소리업시 안방  
으로 튀여드러가서 안젓는디 눈에서 모닥불이 썩썩떨러진다

김승지가 마당에잇는 스름들을 다닐썩차스나 마루우아리에 선사름들은 침  
모유모아히썩 들이라 그것들싸지 멀죽이잇섯스면 죠호련만 필경마누라의게  
우박맛는거슬 저것들은 다보리라 심흔마음에 아모조록집안이 조용하도록 할작  
정으로 서투른성시침이를썩이느라고 침모를보며

(승지) 저 중문밖에교군이 원교군인가 자네가어디를가려고 교군을갓다노앗나  
절문녀편네가어디를 자쥬가면 탈이나

하는소리에 안방에서 미다지를 드으 열어젼치며  
(부인) 여보침모서지 탐이나는보구려

한아를 다려오더니 또한아더두고 십흔가보구려  
이의 춘천집어셔드러오라하여라

춘천집은 이안방에두고  
침모는 저 건넌방에두고

나는 부엌에 내려가서 밥이나지흐마  
령감이 그교군을 모르시고 무르신다더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침모는 성강삿를맞나더니 김승지 압흘피하여 유모뒤에 가섯다

김승지는 마누라의게 봉변을하면서 남뭇그러운마음은업던지 솜씨있게거진말흔  
거서 쓸떡업시된것만 우수운마음이니셔 우슴을참느라고코방울이 벌죽벌죽하여

(승지) 어디 니가 춘천집이 왔는지무어시왔는지 알슈가잇나  
날더러 누가 말을하여야알지 이이 그거시 참춘천집이나

니가 오란말업시 우의 왓단말이나  
니가 다려올것 갓하면 니가 춘천셔 올나올떡에 다리고왔지 두고올리가잇나

춘천잇슬떡에 니가시려셔 니여버린 계집인디 우이니집에를 왓단말이나  
즈근돌아 네가 나가셔어셔그교군을 쫓차보니고 드러오너라

여보 마누라도 싹흔사름이오 즈세이아지도못하고 헛푸념을 그리하구려

그부인은 열이씩두사지 오른사름이라 김승지의말은 귀에드러가지도 아니흔다  
마누라가 외락 썩어나오는셔슬에 침모는싸닭도업시 잘귀를하여 모가지를 음츰  
리고 유모의등뒤에 싹부러션다

김승지는 눈이쌍구리지며 그부인을 보고섯더라  
(부인) 즈근돌아 쫓차보니기는 누구를 쫓차보닐단말이나 네 그춘천집인지 마

마님인지 이리모셔다가 안방에 드러안지시게하여라  
그교군라고 니가 쫓겨가갓다 어셔드러옵시사고 옛쥬어라 니가 그년의 입무락  
좀 보고심다

우이아니드러오고 무슨거드름을 그리피운다더나  
이렇게 거드름스려운년은 니가 그년의덕강이를 세드려놓켓다

항더니 늑잔디청을 썩썩헤미히며 이 방맹이어디가누 이방맹이 어디가누  
하면서 방맹이를 츠지니

김승지가 마당에선 자근돌이를보며 중문산을향하여 눈짓을하여 니보니고 분합  
마루로 드러오면서 부인을달낸다

(승지) 여보 원히거를 그리호오 남뭇그러운줄도 모르오  
춘천집을 쫓차보닛스면 그만이저  
저안방으로 드러갑시다

쇼원티로 하여 줄러이니.....

항며비는 김승지의 모양을 보고 눈치잇는 자근들이가 중문산으로나가다가

도로돌쳐서서 안마당으로 드러오며 항는말이

악가여귀원 교군이잇더니 지금은 업습니다

항거늘 중문산에서 아히들한세가 짜라드러오면서 항는말이

악가원 옥관자붓천 늑은이가 교군군더러어서교군머히고 계동으로가자어

서어서항며 지축을하니

교군군이 교군을머히는디 교군속에서 우름소리가 남

의다

항면서 세상이나 맛는듯호 아히들이 물미듯 드러오니

중을 잔뜩박은 멧투리 신흔말로 마당을 싹 구르면서

요리라먹을 아히년석들

항며 쫓차가니 아히들이 편쌈군 물이드시 물어나가면서

자1 우리들 나가자

잇다가 구경나거든 또 드러오세

부인이 그아히들 항는말을듯더니 한층야단을더친다

을치니가인제야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쫓쳐니가인제야 쫓쳐히알깃다

응 침모의집이 계동이지

악가 령감이 침모더러 항시던말이 싸닭이잇는 말이로구나

그리 춘천집이 올너온거시 다 침모의 휴선이로구나

침모는 너집에잇셔너 너못을일을 그러케한단 말이나

여보게침모 자네는 우의유모의 등뒤에가셔 숨었나

도적이 말이지리다고 허다할사름에 자네혼자 저렇게겁늘거시 무엇인가

여보게얼골좀드러셔 날좀쳐다보게

본리자네 눈우습만항여도 사름여릿곳칠줄 아랏네

춘천집을 침모의집에 두고오늘부터 령감게서 밤낮으로 거리가가서 파듯쳐게실

러이지

침모는 령감게그렇게 긴항게회히고 무슨덕을보려고 그러흔지슬항나

항면서 침모를 집어삼킬드시 날썰는디 침모는 아모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벼락

맛듯 회익을당항고온다

(부인)너편네가 남의집에서 쫓쫓을기는 우의올어

자네셔문에 무어시될것도 아니되깃네

을여거든자네집에가셔올게 춘천집도 계동가셔잇고 침모도계동가셔 잇스면

령감은 계동만 가 게실러이지 여귀게실줄아나

이집에는 나혼자 사당이나 되시고있지  
그리 속이나 좀 자제히알세 엇지하려는 작정인가  
춘천집을 자네집에두고 령감이자네집에 가서거든 뚜징이노릇을 하여먹잔 작  
정인가

춘천집과 버키동서가되야서 셋붓치기피श्यक치 밤낮으로 세시 한덕드리붓터  
잇스려는 작정인가

하면서 이때흔 침모더러 푸념을한다가 다시김승지의게 푸념을한다  
령감어서침모다리고 계동으로 가시오

한무릅혜는 춘천집을안치고 한무릅혜는 침모를안치고 마음디로 호강하고 잇  
서보오

누가 계집을조아하기로 령감처럼 조아하는사람이 어디잇깃소  
너가 다 알아

웃지하면 그것케 안락갑게 조아하는지

그렇게 광피흐소리를 계집종들만드르면 오히려수치가 작다하깃소나 지근들이  
듯는거시 민망하게 너기은사람도 만히잇더라(日露戰爭에媾和)일로전장강화담  
관을 붓치던 미국덕흥령이나왔스면 김승지의 너의싸움을(中裁)중지할년지 아  
모도 말날사름업는싸움이라 그싸움은 싣날슈가엿더라

항복이 나면 싸움이똥치나는법이라 김승지는 조초지종으로 설々기며 항복을하  
것마는 부인이 듯지아니한다

(승지)압다 마누라소원되로 하만밧게 또엇지하란말이오 춘천집이 침모의집  
에잇나업나 마누라가 누구를보니보구려

뎡 못밧거든 마누라가 교군을타고 가서보던지

춘천집은 춘천으로 너리썩춘천집이 어디가잇다고 그리하는지

침모는 공연한사람을 의심하여서 이리흔소리를하니 우수은일리로구  
하면서 정신업시 빈담베스디를 두어번싸라보다가

어! 이것 불업구

하더니 담베스디를 든처로 마루에서 갖다왔다한다

그씩지근들이가 안부여문엽해 섰다가 류목으로 부여문설쥬를 싹 쳐고부여으로  
드러가면서

이런경칠

나갓흐면성.....

지근들의입에서 무슨말이 나올썩 나올썩하고 말을못하는모양인디 상전의일에  
눈골이 잔뜩들어서 제계집을노려보는데 참 싱벼락이 너릴썩하더라  
부여압해가러기느러서듯흔 계집종중중에서 이마는속붓고 얼골빛은 파르죽죽하



고 눈은 가슴치레흔 계집이 나흔스물이 되얏거나 말거나 향얏는디 부엌에로 췌  
여드러오며 즈근들이 향하야 손을 닦리면서  
여보 마루에 들이면 엇지향려고 그거슨 다 무슨소리오  
향는거슨 즈근들의 계집 점순이라

鬼

(즈근들) 남 열나는디 원방정을 그리췌려  
나는 나향고 심흔디로 향지 나향라는디로 향  
지말고 가만이잇거라 한 주목에 마져뒤여질나  
계집이사흔을 미를아니 마지면 여우되나니라

의

향면서 향낭으로 나가더니  
그길로 막걸니집으로 가서 술을 잔씩 먹고 제방에 드러오더니 계집치고 심혀서 싱  
트집을 향니 점순이가 그눈치를 알고 안으로 뒤여 드러가서 나가지아니 혼다  
안에서는 부인의 등쌀이오

聲

향낭방에서는 자근들의 추정이라 상전의 싸흔에는 녀장군이 승전고를 울이고  
종의 싸흔에는 주목제상이라  
김승지는 그부인압흔 췌나지 못할 사정이오  
점순이는 서방의 압흔 갈슈업는 사정이라  
김승지는 그부인압흔 췌나닷다가는 무슨 별야단이 놀지 모를사정이오 점순이는

鬼

그서방압흔로 갖다가는 무슨 형버락을 마질는지 모를사정이라  
그날 히가지도록  
밤이되도록  
김승지가 그부인을 췌라 저녀밤도아니 먹고 부인을 달닌는디 방안에서 상적자던  
사들들은 건넌방으로 다건너가고 녀의 단들이만 잇서 닷투다가 소년기비에 매  
음이 소리긋치드시 부인의 목소리와 김승지의 목소리가 똑긋치더니 다시는 아모  
소리도업는디 그네는 초저녁이라  
점순이는 감감한마루뚫혀서 팔장을 끼고 기동에기되고 안젓다가 혼자 췌 우  
스면서 건넌방으로 건너가더라

의

장수가 향복향고 싸흔은 닷치 나더리도 총맛고 칼마진(病傷兵) 병상병은 싸흔과  
한뒤에 압흔싱각이 더나는 법이라

第五章

그와갓치 침모는 건넌방에 안져서 여러사들을 디향야 의매흔말을 드렸다고 죽고  
심흐니 살고 심흐니 향며 구슬갓흔 눈물을 췌러트리더니 차마를 쓰고 나아가니 원  
집안이 나누를 향며 작별향는디 점고 인물이나 반반흔 계싱긴 계집종들은 서로  
보며향는말이

聲

우리가 만일 저러흔의 심을 바들지경이면 우리들은 상전의 계 미인몸이라 침

「모마누라남갓치 어디로가지도못하고 었지될구」  
 「마남숨씨에 살여 두실나구 방맹이로 처죽이실걸」  
 그렇케 생각하느 김승지집종들은 침모의 팔자가 조흔냥으로 알것마는 침모의마  
 음에는 인간에 나갓치팔자사남고 근심만흔사람은 다시업거니 생각하며 그천정  
 으로가는디 거름이걸이지 아니한다

그천정에는 압못보는늬은어머니 한아뿐이라 숨순구식하느 것일지라도 바라는  
 곳은 쓸한아뿐이라 그어머니를 보러가는디 돈한편업시 옷보흥이들닌 아히한아  
 만다리고 드러가려하니 그어머니가 쓸을보면 무엇이나 가지고올가 바라고잇슬  
 일을 생각하니 과가막기더라

그러하나 아니갈수는 업는지라 계동막바지 오막살이초가집으로 드러가니 그집  
 은 비부장 집인디 비부장은 침모의부친이라 삼년전에죽고 비부장의 마누라만  
 잇는디 몹슬병으로 슈년전부터 압할못보는 사람이되얏더라

그날밤에 침모의모녀는 이약이와눈물로 밤을쉬우다가 다밝은후에 잠이들엇는  
 디 히가떠서 높히오르도록 모르고자더라

만호천문은 낮々치열이고 구릿장안에 사람들이물슬뿌하느디 그중예 계동비부장  
 집은 디문도아니열고 적々흔빛치라 원사람이비부장집 디문을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니 침모가자다가 급히이러나서 디문을열고보니 김승지집 종 점순이라

침모를 싸라드러오더니 성시침이를뚝 띄이고하느말이  
 춘천셔 올너오신 마々남은 어느방에 계심닛가  
 어서좀보고심혀 구경왔쇼

하면서 침모의 눈치만보니  
 침모가 김승지부인의게 이미흔소리를 가진각씩으로 드를떠는 속이압호고 쓰리  
 면서 감히말디답 혼마디못하고 와서 골이잔씩나든터이라 점순의얼골을 한참을  
 보고 아모소리업서 안졌스니 속알머리업는 점순의마음에는 춘천집을 감추어두  
 고잇다가 저를보고당황하야 그리하느 줄로만알고 가장 약은체하고

(점순)우이사름를 그리몹시보시오  
 나는받셔 다알아요

우리갓흔 사람은 암만아더라도 관계치아니하오  
 춘천마마님을여기셔 뵈와도 우리딕마남게 그런말씀은 아니할터이오  
 우리는 평성에 말전쥬라고는 아니하여보앗쇼

너가여기온줄을 우리딕마남이 알기나 아르시나  
 아르셨다가는 큰일나게.....

(침모)무어시 었지하고엇지하여 찻잘맛났네 김승지딕 마남갓흐신이가 자네  
 갓흔하인이 잇셔야지

너가 춘천마마를 감추어 두고 김승지령감이 오시거든 뛰정이 노릇이나 하여 먹  
깃네.....

엇던병신같은년이 자네딴 령감같은 털집두뚝한 양반을 만나서 단 뛰정이 노릇  
만 하여 먹기나 그렇감이 오시거든 령감의 한편 무릅은 너가 차지하고 올라 안고  
한 무릅은 춘천마마가 차지하고 올라 안져서 셋북치기 피씩 갖치 부터 잇슬터일  
제 너가 자네목소리를 듣고 춘천마마를 숨겼네

숨겼다 하니 자네를 겁을 너서 숨긴줄이나 일부러 오느거시 마워서 숨겼네  
어서 가서 그딴로 마님께 엿줍게 김승지의 부인 쫓겨 되면 우리 갖할상년은 성으로  
회를 쳐서 먹어도 관계치 아니 할줄안다던가

자네딴마님이 이런소리 드르시면 교군타고 너집에 와서 별 야단칠줄아네  
요시 갖치 벌들 밝은세상에 너가 잘못한 일만 업스면 아모것도 겁나는것업네  
김승지딴 숙부인도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부인이라도 남의집와서 야단만  
쳐보라게 나는 술포막에 가서 우리집에 밋친너편네 왔스니 쓰러너여달나고 망  
신좀 시겨보깃네

미다지살하나만 분질너보라하게 지관하야 손히를 밧깃네  
침모는 점순이온것을 다행하여겨서 참았던말을 낮々치하고 잇는디 나이만코고  
성만이하고 속이씩을디로씩은 침모의 어머니는 폐맹된눈을 멀뚱々々하고 쌀의

목소리 나는곳으로 고기를 들고 가만이 안졌다가 하는말이

이이그만두어라 다 제팔지니라 네가 김승지딴에 가서 침모노릇 하지 아니 할  
스면 그런소리저런소리 다 듣지 아니 할앗슬거시다

굴머죽드리도 다서는 남의집 침모노릇은 마러라

요시 갖흔 기화제상에는 사족부너라도 과부되면 잔다더라 우리 갖흔 상사람이  
수절이 다 무어시나

어디를가든지 어여썬다얌전하다 그릇게총찬듯는 네인물을가지고 서방감업스  
시 녀너하깃나나

이이디신의첩일지라도 너만흔사람이 몇치나 되깃나나  
요시는 첩두려고 첩감구하는 사람이만라더라

어디고성이나 아니 할곳으로 남의첩이나 되야가거라  
(침모)나는 쪽박을들고 비러먹을지언정 남의침노릇은 하고싶지아니 할오 남

의첩이되얏다가 춘천집신세갓할지경이면 죽는거시편하지.....

그러나 춘천집은 어디가서잇누 참불상흔 사람이지.....  
한면셔도라다보니 점순이는 잔담말도업시 살짜나가고 업는딴 침모의모녀가  
춘천집이악아를하고잇더라

각가운이 웃집에서 불상한다 하는 침모의 이야이쇼리는 지척이천리라 계동박참  
 몽집에잇는 춘천집의귀에 들이지아니하나 멀적혼전동 김승지집에서 풍파가이  
 러나서 소요하던모양은 춘천집의눈에 선이호게보히는드시 싱각이논다  
 춘천집이 박참몽집에 오던날저녁부터 김승지오기만 기다리는데 박참몽집문밖  
 게서 사람의목소리만나도 김승지가오거니 반겨하고 귀가지저도 김승지가 오거  
 니 기다리다가 종노에서 밤 열두시 종치는소리가 땡땡나더니 장안이적적하고  
 김승지는 소식아엿다

박참몽집 건넌방에는 춘천집이 혼자잇서서 근심중에 잠못드리잇고 사랑방에는  
 주인박참몽이 남의늬외싸흠에 팔자엿는 시비엿이를 맞타나보다 싱각한다가 잠  
 이들지 아니호엿는디 그웃목에는 강동지가 어디가셔술을 그럿케먹엿던지 아모  
 거정엿는사람갓치 잠이드러서 반자가올이도록 코를고는디 건넌방과사랑방이  
 지척이라 춘천집귀에 강동지코고는소리만들이니 춘천집이 한숨을쉬며 혼자말  
 노

우리아바지는 잘도쥬무신다 너셔름이 이런줄아르시면 오늘밤에 저럿케셔름  
 엿시 잠드르실슈 잇슬나구

셔올와셔 이럴줄아랏스면 신연강김흔물에 풍덩빠져죽엿슬걸 원수의목숨이  
 부터잇셔셔 이밤에이근심을호는고나 시얏싸흠이니 강쇠암이니 귀로듯기논드

럿스나 늬몸이 그런일 당할줄이야 꿈이나썩엿슬가 세상에 시얏싸흠이 다 그  
 러훈가 우리안파누라만 그러훈가 남의첩되는사름은 사름마다 이광경을 당호  
 이광경을 당호는사름은 세상에 나한아 썩인가  
 춘천솔귀동늬셔 동구밭계를 나아가보지못호고 자라나던 이늬몸이 오늘셔올  
 와서 이거슬당호니 자다가 벼락을마저도 분수가잇지에그 괴막혀라

늬가오늘 교군라고 김승지집에 드러갈때에 철엿고 미련흔 이늬마음에는 김  
 승지집기만보아도 반가운마음뿐이라 그마음가진 이늬몸이 그중문산에 교군  
 을늬러놋코 안젧다가 안티청이 썩나가도록 야단치는 안마누라목쇼리에 가삼  
 이덜적 늬려안고 정신이앗득호여지면셔 이몸이 죽지도말고 살지도말고 아  
 무형체엿시 살죽죽아져셔 빈교군만 남앗스면 조홀듯호형각썩이라  
 늬싱각그러흔줄을 어느사름이 아랏스랴

그광경을 다보고 다드른 우리아바지가 너셔름을 조곰도모르시고 저럿케잠드  
 러 쥬무시니 하는늬이나 아르실셔  
 아바지말숨을 드르면 일싱조흔일만 잇슬것갓더니 이럿케조흔일을 지여쥬섯  
 고나

오늘저녁에는 김승지령감이 정녕오신다더니 소식도엿스니 령감이 아바지를  
 소겼는지 아바지가 나를소겼는지.....

오냐 그만 두어라  
 오거나 말거나.....  
 나 갖치 팔자사나 운년이 령감이 오기로 무슨 시연 할 일 아 잇깃나냐  
 하 늘 갖치 밋고 잇던 우리 아바지도 나를 쇠기 거던 남々 씨라 밋는 남편을 미 들 소나  
 부모도 미 들 수가 업고 남편도 쏘떡 업는 이 세상에 누구를 바라 고 사라 잇스리 오  
 차라 리 죽어 저서 이 서름을 이 첫스면 너 신상에 편하리 라 보고 지고 우리 어머니  
 를 보고 지고

어머니가 나를 보너 면서 울며 하는 말이 어미 생각 하지 말고 잘 가 거라 하시더니  
 그 말 흔지가 몇철이 못되야서 길술이 죽엇단 말을 드르시면 오작서려하시야 어  
 머니를 생각 하면 죽기도 어려우나 너 신세를 생각 하면 사라 잇슬 수록 고성이  
 라 무정하다 김승지는 전성에 무슨 원수를 짓고 밋났던고  
 산 갖치 중혼 언약을 밋고 물 갖치 김흔정이 드렸다가 이별한지 반년만에 너가  
 그 짐중문 사지가 다가 령감이 교군을 시치고 지나가는 소리와 헛기침하는 소리 만  
 뒤 귀에 들엿스니 그 소리 한 마디가 영결이 되얏단 말인가  
 오냐 그럴것업다 령감을 미워하고 원망을 하였더니 이 몸이 죽기로 결심하니 밋  
 든 마음도 업서 지고 원망하던 마음도 푸러진다  
 령감이 너게 무정하야 그러 할 것도 아니오 마누라 투과에 겁니셔 그러 할 거시라

나노 안마루라 가 엿더 할지 격거 보지 못흔 사람이라 이럴 줄을 모르고 령감의 게  
 허신을 향앗스려니와 령감도 본마누라의 성품을 모르고 첩을 어뎛던가  
 엿저 밋났던지 밋는 거슨 연분이오 이별은 팔자이라 연분이 부족하고 팔자가 막  
 하야 이 지경 되얏스니 할 일 업는 일 이 로다

차라 리 령감이 너게 무정하얏다면 나 도 이 첫슬 언저서로 생각 하며 밋나지 못하  
 고 그 마음은 일반이라 이 몸은 황천으로 가 더리도 령감의 정표는 너 몸에 가지고 가  
 노라  
 하면서 만삭호비를 어 르만 지더니  
 복중에 잇는 아헷가 무슨 말이나 아라 듯는 드시 비를 굶어 보며 하는 말이  
 너는 형체가 성겼다가 세상 구경도 못하고 북망산으로 가는구나 오냐 잘 잔다 인  
 간에 와서 보면 근심은 만코 조흔 일은 드무니라  
 너가 너를 나야 못코 나 혼즈 죽으면 어미 업는 어린 거시 무슨 고성을 울년지 알  
 슈잇나냐  
 우리 아바지는 나 죽는 거슬 모르시고 크골고 주무신다  
 너의 아바지는 너 죽는 거슬 모르시고 본마누라 죽목에서 사지를 썸작 못하고 폐신  
 가 보다  
 나 도 미 들 곳 업는 사람이오

너도미들곳업는아희이라  
미들곳업는인성들이 무엇하려고 사라잇깃나나 가자가자 우리는 우리갈곳으  
로 어셔가자.....

향면서 눈물이 가득흐눈으로 정신업시 등잔불을보는디 눈압해 오식무지가션  
다 본리약흐나마음이라 칼로목썰니죽지못하고 압흔줄모르게 죽을작정으로 물에  
나빠져 죽으려고 우물을차져나가더라

그집이 괴여들고괴여나는 오막사리초가집이라 안방건넌방아리방이 솟말갓치  
나란이잇는디 그아리방을 박참봉이사랑으로 쓰고그외에는 중문도업고 디문만  
잇는 집이라 아무리발씨가션 사람이라도 문차져나가기는 어려울거시업는지라  
춘천집이 디문간에서 빗장을 여느라고 신고를한다

사람이 쪼차오는듯오는듯하야 가삼이두군두군하며 겁이나서 빗장을붓들고 숨  
도크게 못쉬고 디문에부러섯다

한참식잇다가 쇼곰식 쉼여보는디 제풀에놀나서 곳치다가 빗장이 덜겨열이는디  
전신이 별별설녀셔 가만이섯다

사랑방에서 박참봉이 깃침을향면서 소리를지른다  
거너누구나.....

춘천집이 삼씩놀나서 문을왈각열고 문밖게로 나가는디 원리박참봉은 벌거벗고

잠자던사람이라 옷입고불켜고 거리하고 나오는동안에 춘천집은 문밖그로 살자  
나셔셔 계동큰길로 내려가는데 길싸원손편에 벌우물잇는거슨 못보앗던지 한숨  
에 계동병문싸져 내려가셔 저스골네거리로 향하야가다가 계동궁담밧헤 잇는우  
물을보앗더라

쉬벽달은 너머가고 횡길이적々흐디 춘천집이 우물가에서서 하늘을 쳐어다보며  
향는말이

하느남々々々

인간에길습이 잇는줄을 아르심닛가

길습잇는줄을 아르서면 길습의죽는것도 아르실러이지.....

전성에무슨 죄를짓고 성겨나셔 이성에 어셔름을진히고 저승으로 가는지.....

미련흔인간이라 제가제죄를 모를터이나 길습의마음에는 길습이가 아모죄도  
업슴니다 어지신하는님이 인간만사를 굽어보시고 짐작이 계실연마는 엇지  
하야 길습이논 이지경에 이르게하시는지.....

이몸이 죽은후에 손장이 이우물에서썩을년지 누가새러너서 무쥬공산에 버틸  
년지 모르거나와 혼은춘천술기로 홀々나라가셔 이밤으로 우리어머니 버키업  
헤가셔 어머니쌍에나 뵈이고져.....

어머니 싱전에는 삼에 가서 뵈일거시오  
 어머니 사후에는 혼을 맛나 뵈우리라  
 그러나 사람이 죽어지면 그만이라  
 혼이 있는 거신지 업는 거신지 혼이 있어서 맛나 보기로 반가운 줄을 알는지 모를  
 년지 사라사다 시 못보는 것만 한이로다  
 오나 한이 있어서 죽는 년이 또 무슨 한탄 하겠나나  
 이서름저서름 이싱각저싱각 다 이저버리고 갈 곳으로 가는 거시 제일이라  
 하더니 처마를 거드쳐 쥐고 우물물우우으로 올라가는데 본리 춘천집이 계집아히로  
 잇슬씨에는 조고마흔 물방구리 이고 당기면서 물도 기러보았는지 술기동너우물  
 가에는 사면으로 ㅅㅅ장을 노아서 집신 신히발로 되스기조케만든 우물이라 그  
 러흐우물에서 발씨가익은 사람이라 그날밤에는 신을 싣고 판자쪽 갖흔 돌우으로  
 올라가다가 립동머리 재벽기운에 이슬이 어려서리가 되었는지  
 춘늬이 장판방에서 밋그러지듯 춘천집이 돌우에서 밋기러져 가루써러지며  
 에그머니.....

소리를 지르고 씬작못한다  
 아흥달된 티중이라 동티가 되었던지 비스속에는 흥두새를 벗티여 노흔듯하고  
 사지를 씬져 거릴 슈업는티 큰길에서 신소리가 저벽々々나더니 식거문웃입은사

름이 압해와서 웃웃서면서 한마디 말을 못다가 대답이 업거늘 거문웃입은사람이  
 호작을부니 그사람은저스골네거리 순포막의 슈검이라

第七章

사람은 쇠천한 혼짜리가 못되더리도 죠선서지체쫓코 벼슬하고 세도출입이나호  
 고 티문만 큼 즉하면 그집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지라 전동김승지집 큰사랑방에  
 식전출입으로 온 사람도 사오안잇섯는지 주인령감이 안악에서 주무시고 아죽아  
 니나 오섯달 말을 듣고 주인 못보고가는 사람뿐이라 그중에 당건쓰고 키작으마호  
 고 얼골에 손티조곰잇고 나히사십여세 짐된 사람은 큰사랑방으로 드러가더니 히  
 가열시반이나 되도록 아나가잇더라 주인김승지는 어제밤에 그부인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발고 싱전에다시는 첩을 두면 키자식이니 쇠아들이니 밍서를 짓고 그  
 마누라의 눈에 엇지그리 잘봐엿든지 그부인과 김승지가 언제싸왔느냐 심호게 정  
 이새로히 드는듯하니 김승지 밍서가 거짓말 밍서가 아니라 중무소주흔 마음에  
 참말로 혼 밍서일너라

밤이 서는 줄을 모르코 돌이 주착업는 이야이만하다가 식벽역에 잠이 드렸는지 부  
 인은 본리부지런흔 사람이라 식전에 이르나서 계집종의게 지휘할 일을 지휘하는  
 티 김승지가 잠이 깨여서 이르나려하니  
 (부인) 여보 어는쇠 이러나서 무엇할시오

어제는 잠도 잘 못 주무셨스니 더 주무시오  
감과 드르시리다 몸조심하시오

하면서 김승지의 시옷을 닦아서 뜻뜻하야 리목 요밋헤 무더 늦는디 김승지는 잠은 깨  
였스나 이러나지 아니하고 드러누워서 담배를 먹으면서 마누라를 보고 싱긋우스  
니 부인은 싸담업시 싸라우셨더라

그럭 김승지마음에는 마누라 업시는 참 못된디 깃다하는 생각뿐이라  
허가 낮이나 되야서 사랑에 나가니 계동박참봉이 와서 안젓더라

김승지가 어제밤에 그 부인을 디하야 다시는 첩두지 아니한다고 밍서 흘려는 춘천  
집을 디러보낼작정으로 흘뭉서인디 사랑에 나와서 박참봉을 보더니 별안간에 춘  
천집 생각이다시는다

(김승지) 어! 식전에 일즉이 나셨쇼구려

늬가 어제밤에 덕으로 좀 가려하엿더니 몸이 압하셔 못갓쇼

(박참봉) 허허 령감정신업스시구려 지금이 식전이오닛가 늬가 오기는 식전에 왔  
습니다마는 지금은 낮이올시다  
허허허.....

(김) 오날이 그럭케 느졌나 나는 밤에 디단이 아랏셔  
오날 못이러날 듯심더니 억지로 형과를 하니 좀 낫군

하면서 얼굴이 붉으레 하여지더니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하야 하는 말이  
여보 어제 데에 사름한아 보닛지요  
좀 잘 맛타 주시오

그리하고 무엇이던지 강동지와 상의하야 돈드는 것만 늬게 말하시오

박참봉이 김승지의 얼굴만 물시름보며 말을 듯고 안젓더니 창밖에 남산을 건너다  
보며 허희탄식하며

(박) 나는 령감을 뵈을 낮이 업소 나를 밋고 령감별실을 늬집에로 보닛섯는디 부  
탁드른본의가 업시되얏스니 어덜타 말습 흘길이 업습니다

김승지가 박참봉의 말을 귀로 드렸는지 코로 맛하는지 썩소리만 한다  
(김승지) 아니 그럭케 말할 것 무엇이잇소

늬첩이 데에 가잇셔 무엇이든지 박참봉의게 폐를 끼쳐셔야 쓰깃소  
그러나 박참봉은 한집안갓하니 말이 지 춘천집이 데에 가셔잇는거슬 우리마누  
라가 알면 좀 좃치 아니하기도 쉬우니 하인들귀에도 들이느거시 부지럽소 우리  
마누라가 듯기로 늬야 잇더할 것 무엇이잇소 박참봉이 우리마누라의게 미움을 받  
들싸 녀녀하야 하는 말이오

(박참봉) 그런 말습은 박부지 아니흔 말습이오 큰 일난일이 잇습니다  
령감별실이 지금 한성병원에 가서 잇습니다



(김) 우의 졸지에 무슨 병이 낫소  
박참봉이 본리 찬々 혼사름이라 춘천집이 우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우물돌우에서 밋  
그러져 너머져서 동티되야 썸썸을 못하느디 저스글네거리 지셔순금이 구하야  
즈괴집에 괴별하던말과 자기가한성병원으로 다리고가던말을 낫々 치하니 김승  
지는 그말을듯고 엇지하면 조출지 모르느모양이라

(김승지) 여보 춘천집의게 당흔일에 돈드느것만 니게말하코 엇더케하던지 박  
참봉이 잘조처만 하여주시오

(박참봉) 네 그러면 아무념녀말고 게시오 니가다조처하오리다

박참봉이 그길로다시 한성병원으로가서 춘천집을보니  
벼기는 눈물에저젖느디 춘천집이 눈을감고누엇더라

머리에서부터 발뺏까지 빅노갓치흰복씩흔 일본간호부가셔투른 조선말로 춘천  
집을부른다

여보 손님이오셨소

춘천집이 눈을써셔보니 어제계동셔 처음으로보던 박참봉이라 싱소흔 박참봉을  
보고 김승지싱각이나셔 눈물이서로히 비오듯하며 아모말도업느니라

(박참봉) 지금은 좀 엇더시오

(춘천집) 세상에 사라있다가 고싱 더 하란팔자이라 죽으려하다가 죽지도못하

고몸에아모랄도 업느모양인가보이다

(박) 시벽에는 동티가된 모양이러니 지금은엇더하시오

(춘) 무슨약인지먹고 지금은진정이됩니다

(박) 몇철이던지 병원에서 조리를잘하코 게시면 그동안에 집을구하야 편히계  
실 비치를하여 드릴터이니 아모념녀말고 게시오

네가오날아침에 전동가셔 김승지령감을 만나뵈왔소 그렇감이 하도이틀쓰시  
니 보기에 민망하디다

(춘) 령감이니싱각을 그릿케하시는것갓하면 니가이지경에 갈리가잇습닛가  
하면서 눈물이가득흔눈에 깃분빛을 썌느것갓더라

박참봉이 어제밤々 지는 춘천집이 니집에로온거슬 두등으로역이던마음이 오날  
한성병원에와셔 춘천집의 모양을보더니 측은흔마음이 한량업시싱겨셔 김승지  
의 부락터로 춘천집을위하야 미사를힘써쥬션할마음이라

(박참봉) 아모 심녀말고게시면 범사가 다 잘될터이니 어셔조리만 잘하시오

박참봉이 춘천집을 위로시킬말이 무궁무진하나 사면이 다 겸연적은 마음이잇  
셔셔 간담흔말로 위로를시기고 이러셔나아가니 그씩춘천집마음에는 강동지가  
왔다가더리도 그릿듯섭섭흔 마음이잇섯슬년지 박참봉이쓰느거시고맙고불안  
흔싱각뿐이러라

출천집이 어제는죽을마음뿐이러니 오날은 박참봉의말을듯고 철천후 한되노마  
음이푸러지며 혼조말로

나도사랏다가 무슨조흔일이 잇스려나

죽기시린마음은 사름마다 잇는것이라 님들죽기가조아서 죽으려흔거슨아니라  
김승지령감의게 정을두고 먹은마음되로 될수가업는고로 한을이기지못하야죽  
으려흔거시라

오냐죽지말고 참아보자 천리가 잇스면 죄업는길순이가 만삭흔비를떨고 우물  
귀신되려는거슬하느님이 굶어보고 도아주지아니할 리치가업슬거시라

우리령감이 나를싼집비치를 하여주고 사홀에한번식만와서 볼것갓하면 나는  
더바랄것도업고 한될일도 업슬터이야 박참봉은 나를언제보앗다고 그러케고  
맏게구누

말한마디를하여도 너속이시연하도록하니 엇지하면 남의사정을 그러케 조세  
이아누 처음보아도 반갑고정속흔 마음이나서 너속에잇는말을 다하고심흐나  
박참봉이 나를이상히 여이샤 녀녀되야 속에잇는말은 다 못하얏스나 우리령  
감의일이나 좀자세히 무러보더면 죠앗슬길.....

박참봉이 우의 남조가되얏던고 누구던지 녀편네가 너게그렇게 정답게구누사

름이 잇셔서 평성을한집안에서 좀지니보앗스면.....

그러케 생각하는 출천집은 아즉박참봉집에잇셔도 비편흔마음이 별로업슬듯하  
나 박참봉은항로박비 집을구하야 출천집을 보되려하느거시 꼭절이잇더라

박씨가 김승지의부락을 혈후히여기는것도아니오 출천집을시려서 하로박비  
송을되려하느거시아니라 이쇼문이 김승지부인의귀에 드러가면 박참봉이다시는

김승지집문안에 발그림조도 드러노홀수가 업는사정이오

또김승지의 부인에게 무슨망신을 당할는지 무슨욕을 먹을는지 조심되노마음이  
적지아니흔지라 남녀가유별하니 지상의집부녀가 남의집남자의게 욱홀슈업고

망신시길수도 업슬듯하건마는 남의일에 경계되는일이잇더라 김승지를 짜라서  
출천척방갓던 최감찰이라 하느사름은 출천잇슬썩에 출천집흔인종미 드러다고

김승지의부인이 만만흔최감찰만 욱을하던차에 최감찰이 사랑에와단 말을듯고  
열이나셔 야단을치며 하느말이 그못된썩정이놈이 우의니집에 왔단말이나 령감

이돈냥이나잇고 남에게잘속는 냥반이라 최감찰이 남의지물이나 다쇠겨써먹  
고 남을망하야 늦코십다더나

그망흔놈 니집에 다시오지말나하여라 하느서슬에 집안이 발흔되집하며 안팎이  
수군수군 하는소리를 최감찰이듯고 다시는 김승지집에 발길드러늦치 아니흔일

도잇는디 박참봉이 만일그지경을 당하코 김승지집에를 못가면 박참봉의게는